

기고

가을철 안전을 지키는 방법

김고운 여수소방서 예방홍보팀



'9월과 10월' 추석 연휴로 인해 별초나 나들이가 많은 기간이다.

그만큼 벌 쏘임과 뱀 물림 사고가 잦은 기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벌 쏘임 사고로 1만 1,245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

뱀 물림 사고로는 974명을 이송했다.

연도별로 이송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심정지 환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니만큼 예방과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벌 쏘임 예방을 위해서는 등산이나 별초 시 향이 짙은 화장품이나 향수 사용을 삼가고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벌 쏘임 응급처치 방법으로는 벌침이 피부에 남아있을 경우 플라스틱 카드로 피부를 긁어내듯 침을 제거하고 얼음주머니를 대어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다.

어지러움,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전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

뱀과 진드기 등 각종 벌레나 동물의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긴 소매와 발목을 덮는 옷, 장화를 착용하는 편이 좋다.

뱀에게 물렸을 때는 즉시 누워 움직이지 않고 물린 곳에서 5~10cm 위 부위를 적당한 압력으로 묶어 독이 퍼지지 않게 한다. 이때 너무 강하게 묶으면 혈액순환이 안되어 괴사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당하게 묶는 것이 중요하다.

후에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한다.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유지하여 순환이 지연될 수 있도록 한다.

응급 상황이 언제 발생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 대비하여 예방법과 처치법을 미리 숙지하면 나와 내 가족, 동료들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간단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들을 숙지하여 두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고올 상담센터 222-5666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 고장신고 121
- ▲전기 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키아일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초고령화 시대, 지자체 특성 담은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해야



이병노 담양군수

초고령화 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65세 인구 비중이 전체인구의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6월 말 기준 18%를 넘어섰다.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전 전체인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의 이야기이고 농촌으로 오면 현실은 더욱 심각해진다.

우리 담양군의 노인인구는 6월 말 기준 33.4%로 이미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한 지역에서 평생을 자리 잡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며, 직접적인 대면관계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역할을 수행하느냐가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각 지역만의 환경이나 특색을 반영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담양군정을 이끌기 전 40여 년의 공직 생활을 했다. 그중 주민복지실장을 지내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사례를 살펴봤다.

특히 100세를 넘기신 부모님을 직접 모시면서 우리가 사는 담양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과 어떻게 하면 길어진 노년기를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행복하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이어갔다.

행복한 노년을 보장하고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어울려 주거, 보건, 요양, 돌봄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했고, 그 결론이 바로 '향촌복지'다.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본인이 살던 고향에서 친구, 이웃들과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향촌복지의 핵심이다.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향촌복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 '담양형 통합돌봄 중기계획'을 수립했으며, 4년간 4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향촌복지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실무적인 뒷받침과 함께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

기본 요양원을 개선하고 네트워크화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와 간호사가 병원 이용이 불편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우리마

을 주치의' 등 보건지소의 기능을 강화해 모든 군민의 건강을 아우르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사각지대 독거노인을 자원봉사자와 1대1로 연결해 정기적인 안부를 확인하는 어르신 지킴이단의 확대 운영, 가구별 예·경보 시설 설치 시범사업,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 떠오르고 있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제적인 빈곤은 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이며, 노후 소득은 행복의 필수조건이다.

담양군은 군비 5억 5천여만 원을 추가해 현재 10일이던 공익형 일자리 활동 일수를 12일로 확대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참여를 통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이며 노년기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노인인구로 편입될 중년들을 대상으로도 선제적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년들의 활동공간인 '중년 쉼터'를 광주·전남 최초로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50~60대 중년들을 대상으로 건강,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사회의 새로운 군민사랑방으로 자리 잡았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고,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10월 2일은 노인의 날로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온 노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노인 세대의 편안한 노후를 도와주는 것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이며, 이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과 행복은 달라질 것이다.

민선 8기 1년여가 지난 지금, 담양만의 특색있는 복지모델인 향촌복지는 주민들과 호흡하며 정착했다. 앞으로 더욱 연구하고 다듬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효도 행정의 대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겠다.

기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빈집털이 예방은 이렇게

주재천 고흥경찰서 풍양파출소 경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새벽공기가 제법 쌀쌀한 가운데 우리나라 대표 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지난 8월31일을 기준으로 코로나 19가 독감과 같은 4급 전염병 수준으로 낮춰져 완전히 일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으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임시공휴일을 더해 6일간이나 되어 집을 비우고 고향을 찾거나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긴 연휴로 인해 집을 비워두는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해마다 반복되는 명절 연휴 빈집털이 예방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은 코로나로 인해 고향을 내려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올해는 예전처럼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명절 연휴 기간에는 빈집털이 절도 발생률이



20%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명절 연휴 빈집털이를 예방법만 지켜도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첫째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를 방문 빈집 사전신고제 이용하기 둘째 현관 앞에 신문,택배,전단지가 쌓이지 않도록 하기 셋째 조망, TV등 걸 수 있도록 예약기능 활용하기 넷째 현금 및 귀중품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기 다섯째 고층아파트라도 창문 등 문단속을 철저히 하기 등을 지켜 나의 소중한 재산이 도난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올 추석 연휴기간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과 안심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집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빈집털이 예방 유의사항을 잘 지켜 보름달 만끽이나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해본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